

블룸의 인물상응 양상

이 종 일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소설 『율리시스』(*Ulysses*)에는 무수한 인물, 사물, 사실, 개념, 이미지, 사건, 기법들이 등장한다. 흔히 백과사전적 기법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그렇지 않아도 이 소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가령 이질적인 요소들의 병치, 의식의 흐름, 이야기 전개상의 단절과 공백, 상이한 모티프, 문체 및 형식을 지닌 각 장(章) 사이의 불연속, 그리고 문법을 깨뜨린 언어 구사 등—에 가세하여 이 소설을 더욱 더 읽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무수히 등장하는 상이한 요소들 저변에 이런저런 종류의 연결고리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각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율리시스』에서 어떤 특성을 공유한 두 작중인물, 혹은 “겹친 그대 두 사람(2 double yous)”¹⁾은, 둘 이상의 개체가 동일한 성질을 공유하는 특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이 소설의 세계관과 구조에 있어서 주요한 원칙으로 작용하는

1) Joyce 작품의 인용시 『율리시스』(*Ulysses*)의 경우는 인용문 뒤에 장(章)수와 쪽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경우는 P 뒤에 쪽수만, 『피네건스 웨이크』(*Finnegans Wake*)의 경우에는 FW 뒤에 쪽수와 행수를 각각 밝히기로 한다.

이체동질(異體同質 consubstantiality)의 모범적인 양상을 이룬다. 더러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이 양상은 성격, 성향, 습관, 복장, 생각, 관심사, 상황 및 개인적 역사와 배경 등 인간의 정체성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있다. 그리고 이 양상은 워낙 일반적이어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누군가와 어떤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그리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그 대표적인 존재로서 주인공 블룸(Bloom)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체동질적인 관계를 이룬다. 그는 가령 아내 몰리(Molly)와는 매사를 유연하게 대하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일정 정도의 부정(不貞)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성실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또 벅 멀리건(Buck Mulligan)과는 물질주의(Hart 52) 및 풍부한 재능(Senn 130-36)의 측면에서, 머피(Murphy)와는 위장되고 잘 변하는 정체성의 측면에서, 맥코이(M'Coy) 및 브린(Breen)과는 결혼생활의 문제(5.185-90, 18.1275-77)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는 이들 외에도 예수, 매킨토시의 사나이 및 필립 보포이(Philip Beaufoy)(4.502-3, 13.1060) 등 수많은 인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스티븐(Stephen) 또한 “다른 나”(3.182)를 여러 인물에서 발견한다. 그는 가령 거티(Gerty)와는 미성숙, 친구들로부터의 소외, “성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것을 회구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성향”(Maddox 76-78) 등을 공유한다. 그로 하여금 “나도 저랬지”(2.168) 하고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학생 사전(Sargent), 해변에 비참하게 쓰러져 죽어 있는 모습이 그를 닮은 개(4.351-52), “어머니가 짐승 같이 죽은”(7.583-84) 점이 그를 닮은 살러스트(Sallust) 또한 그로 하여금 자기동일시를 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 밖의 인물들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 혹은 심지어 다른 동물들과 비슷한 면모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율리시스』에서 인물의 겹침은, 신격에서의 합일과는 달리, 완벽하고 영구적인 합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유사한 면뿐 아니라 차이점도 보이는, 즉 “비슷한 차이가” “다르지만 비슷하게”(17.886-908) 나타나는 양상으로서,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이다. 인간 세계에 따르기 마련인 이렇듯 불완전한 이체동질의 양태는 형식의 차원에서 이 소설의 난해성을 낳는 혼돈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질서 사이의 긴장된 관계를 구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주제의 차원에서 인물들의 성격, 그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삶의 문제를 대변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먼저 이 작품의 주인공 블룸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는 스티븐과 어떤 이체동질적 관계를 이루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것이 블룸의 성격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이체동질의 불완전한 성격이 유사성과 차이점을 아우르는 모순적인 방식은 무엇보다도 블룸과 스티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그 극명한 양상을 드러낸다. 블룸과 스티븐이 수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집 열쇠가 없고 검은 옷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비슷한 상태이다. 폭력을 싫어하는 국외자이자 “예술가”라는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비슷한 입장이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비슷한 경험도 한다. 하루 종일 더블린의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샌디마운트(Sandymount) 해변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수음을 하며(Hayman 85, Kenner 57), 육체적, 문학적 생산을 하고(스티븐의 코딱지와 시구(詩句) 및 블룸의 정액과 거티에게 보내는 메시지), 떠다니는 바위(Wandering Rocks) 장에서는 남몰래 외설적인 책을 탐독하며(블룸은 10절, 스티븐은 13절에서), 여자한테 홀대받는가 하면(1.419, 11.1110), 종잇장을 찢어버리고(블룸은 『티빗』(Titbits)에서(4.537), 스티븐은 디시(Deasey)의 편지에서(3.405))(Blamires 25), 위협적으로 보이는 개에게 지팡이를 들기도 한다(3.296, 15.4946). 또한 스티븐이 도서관에서 이체동질에 관한 그 나름의 이론적 개념을 골자로 하는 셰익스피어 이론을 설파하는 것처럼, 이에 대한 도덕적 동가물이라 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지고한 가치에 대하여 블룸은 술집에서 연설을 한다. 그리고 둘 다 남의 눈을 매우 의식하는 편이다.

블룸과 스티븐은 외적인 공통점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태도도 공유한다:

비록 그들이 매사에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둘 다 이를테면

한가지 생각의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양 어딘가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았다.
(16.1579-81)

그들은 가령 스티븐 제임스(Stephen James)를 생각할 때처럼(3.241, 4.490-2) 비슷한 명상을 하고(Gifford 80) “한 생명이 전부야. 한 몸. 하라. 그러나 하라”(9. 653, 11.907-8)라는 동일한 구절을 떠올리는 우연의 일치를 보인다(Levitt 81). 그들은 관점에서도 종종 유사점을 보이는데 거창한 개념을 싫어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심지어 사회에서 다수 지배세력으로부터 이단이라는 이유로 천대나 매도를 당하는 대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닮았다. 실로 “그들은 인식과 심상, 생각과 느낌뿐만 아니라 감수성과 역사까지도 공유한다”(Levitt 81).

그러나 이 모든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스티븐과 블룸은 여러모로 날카로운 대조를 보이기도 한다. 우선 스티븐이 미혼의 청년, 블룸이 기혼의 중년으로 결혼관계와 세대가 다르다. 한 사람이 관념적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실질적이다. 한 사람이 유태적 희랍인의 특징인 경직된 심성의 소유자라면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적 유태인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Waidner 179-97). 한 쪽이 스스로를 비극적 인물로 보는 반면 다른 한 쪽은 자신을 희극적 인물로 본다(Harkness 188). 그리하여 두 인물이 작가의 성품이 소설을 통해 구현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조이스 정신의 대극”을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까지 있다(Brivic 150).

엄밀히 말해서, 스티븐과 블룸은 서로 전적으로 동일하거나 전적으로 반대되는 인물 유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서로 뚜렷이 구별되지도 않는다. 예컨대 의식상의 공통점만 하더라도, 애덤스(Adams)가 지적하듯, “조이스는 결코 한 사람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의 머리 속으로 옮겨 놓는 식으로 어설프게 이런 종류의 주제 평행을 밀어붙이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두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정신감응적 통신”은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유사점”이다(97). 이런 점에서, 스티븐이 도서관에서 설파한 이체동질설은 기독교식 삼위일체설의 경직성을 넘어서서 인간 현실의 불완전한 성격을 고려한 일종의 응용이론임을 우리는 환기할 필요가 있다. 즉 『율리시즈』에서 이체동질은 완전무결한 신적 특성을 공유하는 3위격을 가리키기보다는 인간적 특성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불완전한 양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체동질의 견지에서 두 사람간의 만남이 가지는 이렇듯 불완전한 성격은 서

어시(Circe) 장의 환상적인 장면에서 그들의 얼굴이 거울에 겹쳐져 비쳐졌을 때 거기 선명하게 나타난 셰익스피어의 얼굴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린치

(가리킨다) 자연을 비추는 거울을. (그는 웃는다) 후 후 후 후 후!

(스티븐과 블룸은 거울 속을 들여다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얼굴이 턱수염도 없이 안면마비로 경직된 채 거기 나타나는데 거울에 비친 홀 안의 순록뿔 모자걸이를 왕관처럼 걸치고 있다.) (15.3819-24)

셰익스피어의 거울상이 내포한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아 왔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해석의 하나는 “상극의 합일”이라는 개념이다. 그 한 예가 “시민과 예술가”라는 대극적 참조 틀에 바탕을 두고 있는 피크(Peake)의 “두 사람의 상이 셰익스피어의 턱수염이 달린 혹은 달리지 않은 얼굴 속에 합쳐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소설의 중심을 이루는 한 가지 개념, 즉 ... 반대되는 존재간의 만남(meeting of opposites)을 나타낸다”(271)는 진술에 나타나 있다. “반대되는 존재간의 만남”이라는 피크의 문구는 “대립물의 일치(coincidence of contraries)”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런 종류의 합치가 반드시 “반대되는 존재” 사이에만 일어나는가? 스티븐과 블룸은 차이점만큼이나 유사점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이가 반드시 상극을 뜻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합일(fusion)”이라는 말은 엘먼(Ellmann)이 “스티븐과 블룸은 조이스가 ... ‘합일’이라 일컬은 상태에 도달했다”(1972, 149)고 말할 때 지칭했음직한 완벽한 일치와 비슷한 의미로 오해될 수가 있다.

두 얼굴이 한 얼굴로 겹쳐지는 것은 말하자면 이체동질의 양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만남” 또는 “일치”로 표현될 수도 있다. 블룸과 스티븐은 셰익스피어로 대표되는 작가적 특성을 확실히 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턱수염 없고 뿔이 달린 셰익스피어의 얼굴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여기서 마비, 턱수염의 상실, 뿔 달림은 각각 무기력, 여성성, 간통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합치면 삼위일체 또는 스티븐의 포괄적인 이체동질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구성하는 부성(父性)의 부정(否定)에 수렴된다. 이런 맥락에서 턱수염의 상실은 스티븐-아들-의 미성숙을, 뿔 달림은 블룸-아버지

-이 오쟁이 진 사실을, 그리고 마비는 조이스-유령-의 부재를 각각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없는 스티븐(그는 정신적 아버지로서의 사이먼[Simon])의 존재를 부정한다)과 아들 없는 블룸(그는 그의 육체적 아들인 루디[Rudy]를 잃었다)은 몸 없는 조이스(그는 작품 속 인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정제되어 사라진”(P 215) 작가로서 존재한다)의 도움을 통해 서로 합해질 필요가 있다. “근엄한 복화술로”(15.3824-25) 블룸에게 말을 거는 셰익스피어는 “아무 것도 아닌 자(no one)”로서의 조이스의 유령이다. 텍스트에 편재(遍在)하는 작가는 『초상』에서 “무관심한” 작가가 그러는 것처럼 “손톱을 다듬는” 대신에 거울에 비친 셰익스피어의 상을 통해 그 자신이 창조한 자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스티븐과 블룸은 한 비평가의 말대로 “그들의 창조자의 모습이 장난거울에 비추어진 두 개의 상”(Thomas 55)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스티븐과 블룸이 완벽한 합치를 달성했다는 말은 아니다. 『율리시스』에서는 만남이나 일치가 반드시 완전한 통일체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얼굴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시사적이다. 여기에서 마비는 부정적 의미의 정지(stasis) 같은 특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스티븐과 블룸의 얼굴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셰익스피어의 얼굴이 살아 있지 않고 죽어 있는 까닭이다.²⁾ 달리 말해서 조이스는 마비된 얼굴이 지속적인 생명을 지닌 참된 얼굴로서보다는 죽은 듯 작용하지 않는 얼굴로서 받아들여지기를 꾀했을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서어서 장에서 펼쳐지는 블룸의 소위 “환각”이라는 것도 진정한 현실의 그림이 아니라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시적인 가능성으로 제시된 블룸의 정신적 삶에 대한 극화인 것이다. 이런 뜻에서 엘먼이 블룸과 스티븐의 “합일”이라고 표현한 것의 진정한 의미는 “명중”이라 기보다는 일종의 “아슬아슬한 빗나감” 쪽에 가깝다:

... 그들 <스티븐과 블룸>이 셰익스피어와 몽땅 합쳐진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그들 자신의 좋은 입지를 빼앗는 일이 될 것이다. 님움이 특히 가까워질 때마다, 조이스는 그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마치 왼손 장갑이 오른손 장갑을 닮듯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접근하는, 완벽한 일치가 아닌 근사(近似)한

2) 콜린 맥케이브(Colin McCabe)는 거울 속의 마비된 얼굴이 “표기(signifier)의 지위집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는 완전히 통일된 정체성, 즉 합일에 대한 조이스의 거부를 아이로 니컬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58).

일치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너무 멀리 밀어붙일 경우, 유추는 명중이 되기보다는 여기서처럼 회극적이고 아슬아슬한 빗나감이 된다. (Ellmann 1977, 58)

스티븐과 블룸 사이에 벌어지는 이체동질화의 양상은 부분적이고, 순간적이며, 조건적이고, 불안정하다. 요컨대 그것은 완벽에 미치지 못한 채 “거의 되어가기(almosting)”만 하는 양상이다. 달리 말해, “그들이 빚어내는 상극의 일치는 다시 뒤섞여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의 들쭉날쭉한 일치(the coincidence of their contraries reamalamerge in that *identity* of undiscribles)”(FW 49.36-50.1. 필자의 이탤릭)이다.

실상 스티븐과 블룸 사이의 이체동질적 겹치기를 구성하는 수많은 항목들 중 모든 맥락에서 완벽하거나 지속적인 것은 없다. 그것들은 어떤 차원에서는 비슷한가 하면 다른 차원에서는 다르다. 예컨대 텔리마커스(Telemachus)와 칼립소(Calypso) 장의 끝 부분에서 그들이 각자 종교적인 소리를 듣고 죽음과 관련된 짙막한 내면독백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유사점들의 주변에도 차이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스티븐이 기억 속에 들어 있는 한 신부의 기도 소리를 마음 속으로 듣는 반면, 블룸은 교회 종소리를 실제 귀로 듣는다. 또 스티븐의 “찬탈자”(1.743)라는 소리가 적대적인 톤을 띠다면, 블룸의 “불쌍한 디그넘(Dignam)”!(4.551)이라는 소리는 동정적인 톤을 띤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수반됨으로 말미암아 유사점들은 비스듬한 것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겹치기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동떨어진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스티븐이 실제로 물푸레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데 비해, 블룸은 그 자신이 “진흙에 박힌 불쌍한 낡은 막대”(15.329-30)로 지칭된다. 또 바닷가에서 소녀를 바라보는 경험이 스티븐에게는 『초상』에서(“새 소녀”에 관한 명상에 빠진 상태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블룸에게는 『율리시스』에서(“다리를 저는” 거티와의 암묵 속에 육체적 활동에 몰입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때 두 인물의 모든 이체동질적 특징들은 그 정도와 차원에서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는 유사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카(Ithaca) 장에서는 유사점 및 차이점의 견지에서 스티븐과 블룸의 관계에 존재하는 평행의 난해한 양상에 대한 매우 복잡한 논의가 펼쳐진다. 이사카는 상징적으로 의미심장한 질문 “블룸과 스티븐은 돌아오면서 어떤 평행한 노선을 따라 갔는가?”(17.1. 필자의 이탤릭)로 시작한다. 만일 이 “2인조”가 “돌아오는”

길에 완벽한 일치 또는 합치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완전히 똑같은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평행”이라는 단어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평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모순적인 함의를 지닌다. 한편으로 그것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끝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전제로 한다. 의미심장하게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베레스포드(Beresford)로부터 출발할 때에는 “몽친(united)” 상태였지만 나중에 하덕 플레이스(Hardwicke place)에 접근할 때에는 “떨어진(disparate)” 상태임을 알려준다. 문답은 “공통된” 요소와 “달라진” 요소들에 대한 미묘한 논의를 이렇게 계속한다:

블룸은 경험에 대한 그들 각자의 동일하고 다른 반응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의 공통된 요소들을 발견했는가?

둘 다 예술적 감동에 대해서는 민감했다 ... 둘 다 섬나라의 생활방식 보다는 대륙의 생활방식을 더 좋아했다 ... 둘 다 일찍부터 받은 가정교육과 혈통을 통해 물려받은 이단적 저항의 끈기로 다져진 지라 많은 종교적, 국가적, 사회적, 윤리적 정통이론에 대한 불신을 피력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견해가 달랐는가?

스티븐이 식사문제에 있어서나 시민된 도리로나 자조(自助)가 중요하다는 블룸의 견해에 내놓고 이의를 달은 반면, 블룸은 문학에서 인간의 정신이 영원히 인정받는다는 스티븐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다 ... (17.18-42)

이후 그들이 몽칠 가능성은 그들의 입장을 가상적으로 바꾸어 봄으로써 시험대에 올려진다:

그들은 교육경력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블룸 자리에 스티븐을 교체하면 스톨은 ... 를 거쳤을 것이다. 스티븐 자리에 블룸을 교체하면 블리븐은 ... 를 거쳤을 것이다.... (17.548-54)

“스톨”과 “블리븐”이라는 뒤섞인 이름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합일은 그 상당

한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가정법으로만 진술될 수 있다. “스티븐과 블룸이 ‘블리븐 스톰’이 될 수 없다는 것“(17.549)은, 그들의 우발적인 결합이 거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통해 그 전조를 이미 보인 것이다(Bell 205). 그들의 “몽침”과 “갈라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그들이 악수를 하며 헤어질 때 울리는 교회 종소리의 서로 다른 메아리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죽음이라는 비슷한 주제를 환기시키는 현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형상화된다:

접선의 결합, 그들(각자)의 원심적이고 구심적인 손들이 떨어질 때 들린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세인트 조지(Saint George)교회에서 울리는 종이 밤 시간을 알리는 소리.

그들은 함께 그리고 따로따로 그 소리의 어떤 메아리를 들었는가?

스티븐이 들은 것은:

릴리아타 루틸란티움. 투르마 시르쿰뎃

*루빌란티움 테 베르기눔. 코루스 엑스피앗.*³⁾

블룸이 들은 것은:

헤이호, 헤이호,

헤이호, 헤이호 (17.1224-34)

서로 다른 두 사람은 비슷한 요소들(비슷한 차이들)을 가진 반면에,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양상들(다른 유사점들)을 보인다. 그리하여 비슷한 차이 혹은 다른 유사점은, 종소리의 메아리를 “함께 그리고 따로따로” 들었다는 진술을 통해 암시된 것처럼, 그들의 평행, 몽침과 떨어짐의 공존이라는 모순적 성격을 갖는다.

III

이렇듯, 『율리시스』에서 인물간의 이체동질적 상응은 두 존재간의 완전무결하

3) *Liliata rutilantium. Turma circumdet./ lubilantium te verginum. Chorus excipiat.* (“백합처럼 환하도다. 한 무리가 주위에 모여드네./ 처녀들 중 즐거운 그대들. 합창대가 구원하도다.”)

고 영구적인 합일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일시적인—아무리 의미가 있더라도—만남 혹은 스쳐감을 경험한 후에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것이 매테르링크(Maeterlink)가 한 말, 즉 “만일 소크라테스가 오늘 집을 떠나면 그는 그 성현이 코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만일 유다가 오늘 밤 길을 떠나면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은 유다 쪽일 것이다”(9. 1042-44)의 참뜻이다. 블룸과 스티븐의 만남에서 그 의미를 과대 혹은 과소 평가한 나머지 그들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정적이거나 허무적인 태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율리시스』에서 이체동질의 본질적 특징은 유사점과 차이점간의 모순적 관계의 움직임이 궁극적인 병합이나 견고한 확실성이라는 안정된 상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진동으로부터 생기는 지속적인 긴장을 겪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체동질을 향한 출발과 자신에게로의 귀환이라는 틀은, 차이를 수반하면서, 되풀이된다. 『율리시스』에서 ‘출발-모험-귀환’의 순환 틀이 딸림음이 으뜸음으로 돌아오는 음악적 틀과 상통한다는 사실도 이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Smith 404-19).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합쳐진다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실상 유사점과 차이점은 상호보완적인 짝인 바, 바로 이 둘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상대의 존재를 위해, 그리고 새로워지고 변환된 반복의 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다. 유사점과 차이점, 나아가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지닌 성격은 워낙 복잡하고도 모순적이어서, 『율리시스』에서 겹치기(doubling)의 불완전성은 타자와의 이체동질적 관계라는 견지에서 보면 질서와 얹혀 있는 무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개개 정체성의 지속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변화의 무질서한 과정 끝에 되찾게 되는 질서를 뜻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작품에 확연히 드러나 있건 은밀히 감추어져 있건, 이체동질의 이렇듯 복잡하고 불완전한 양상은 『율리시스』의 모든 인물들과 사물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이체동질화를 이루고 난 뒤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춘 것은 다름아니라 조이스가 “완전한 만능 인물”(Budgen 15-17)로 설정한 블룸 뿐이다. 골드백(Goldberg)이 지적하듯, “그의 완전성은 도덕적 활력의 표시이고 그의 의식은 이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살아 있는 사람의 표정이다”(170). 타인과의 감정적인 겹치기를 마치고 난 뒤 자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능력은 궁극적

으로 보편성의 원천을 이룬다. 왜냐하면 그러한 회복능력이야말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 겪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변화와 출발의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사점과 차이점간의 긴장을 형상화하는 가장 극적이고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블룸이 스티븐의 아버지 사이먼이 부르는 오페라 「마파리」(“M'appari”)를 듣는 사이렌스(Sirens) 장의 오먼드 바(Ormond Bar) 대목에서 살펴보자. 이 대목은 가수 사이먼, 청취자 블룸, 그리고 오페라의 주인공 라이어널(Lionel) 등 세 인물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차원의 이체동질이 포함되어 있다. 극적 차원에서 볼 때, 세 인물은 저마다 다른 의미에서 사랑을 상실한 터이다. 사이먼이 육체적 의미에서 그의 아내 메리(Mary)를 사별했다면, 블룸은 도덕적 의미에서 바로 그 순간 간통중인 그의 아내 몰리로 말미암아 오쟁이 지고 있으며, 라이어널은 정서적 의미에서 그가 사랑하는 소녀 마사(Martha)한테서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상상하고 있다(Gifford 129, 292, 302). 이를 이름의 차원에서 보면,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가 발견된다. 블룸이 연애편지를 교환하는 상대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라이어널의 여자가 사용하는 가짜 이름과 같은 “마사”이다. 그런데 “마사”라는 이름은 성경에 대한 암시를 통해 사이먼 아내의 이름 “메리”와 결부되고,⁴⁾ “메리”는 다시 블룸의 아내 “몰리” (“메리”의 별칭(nickname))와 명칭상으로 이체동질의 관계인 것이다. 부성의 상징적 차원에서 보면, 이들 셋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나마 아들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라이어널은 미혼이고, 블룸은 아들을 여의었으며, 사이먼은 정신적으로 아들한테서 버림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언어적 차원에서 보면, 정체성의 겹치기가 사이먼의 노랫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 즉 “Come”과 “To me”는 각각 “co-me(나와 함께)”와 “Two-me(두 개의 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언어적 겹치기들이 결국 세 사람 이름의 합성어인 “사이어폴드(Siopold)”(11.752)에 수렴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완전한 합일을 이룬 것인가? 위에서 공통점을 열거하면서 언급한 차이점들과는 별도로 세 인물은 연주회장을 떠난 후에 결혼생활이라는 견지에서 상이한 행로를 걷게 되어 있다. 라이어널은 완벽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예정

4) Mary(혹은 Molly)와 Martha는 『율리시스』의 여러 곳—5.289-91, 7.52-53, 15.2981, 13.312—에서 짝을 이룬다. 가령 거티의 아버지가 메리에게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이먼이 마사에게 구애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의 변주라 할 만하다.

이고, 블룸은 아마도 흠이 난 부부관계를 부득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사이먼은 십중팔구 홀아비 생활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 세 인물들의 겹치기가 보이는 이러한 불완전성은 사이먼이 부르는 노래가 자유로이 변안된 판이라는 사실에 의해 암시되고 있다(Gifford 292). 노래가 끝나자 블룸은 “오라. 잘 불렀다. 모두 박수쳤지. 그 여자는 마땅히. 오라. 내게로, 그에게로, 그 여자에게로, 당신도, 나도, 우리도”(11.754-55)라는 의식에서 보이듯 그 상황의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의식하면서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블룸의 정체성이 지닌 보편성은 서어시 장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구현된다. 이 장의 환상적 세계, 혹은 “쌍둥이와 짝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울들의 홀”에서, 서어시의 분위기에 걸맞은 자아의 카니벌식 혼돈이 일어난다“(Bell 188). 그는 실로 온갖 종류의 “인성 복제”(15.2523)를 겪고 “아무 것이나 다 되는 사람(anythingarian)”(15.1712)이다. 그가 보이는 인성의 변화에는 각종 상용 및 연상과의 관련 속에 일어나는 육체적 변신을 비롯한 역할, 이름, 직업, 지위, 복장, 성(性), 나이 등의 변화가 뒤따른다.

그러나 그의 보편성이 그의 특수성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겹치기에 있어서 그 포괄적인 양태가 그의 보편적 정체성을 가리킨다면, 그것의 불완전한 양상은 그의 특수한 정체성을 입증한다. 실상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완전한 합일을 통하여 카니발적 정체성 중 어느 하나에 고정된다면 그는 본래 자아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블룸이 그토록 많은 다른 존재들과 겹쳐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그가 그의 고유한 인성을 끝내 견지해 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티븐의 다음 말은 정곡을 찌른다:

자신을 거쳐갈 생각 없이 세상 끝으로 길 떠난 존재, 신, 태양, 셰익스피어, 외판원은 실제로는 자신을 거쳐게 되어 그 자신이 된다 ... 그 자체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도록 미리 조건지어진 자아. (15.2117-21)

여기서 스티븐이 블룸-외판원-을 신 및 셰익스피어와 연결짓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각각 현실세계와 허구세계의 창조자인 신과 셰익스피어가 그들의 창조물 속에 내재하듯이, 블룸의 세계(Bloomsworld), 즉 『율리시스』를 창조한 작가 조이스의 소설적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 블룸은 작품의 각 인물 속에 내재해

있다. 이렇듯 그는 한편으로는 작품 속의 모든 인물과 이체동질적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everybody)”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신과 셰익스피어라는 유명(작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작품 도처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명이다)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거쳐간다는 점에서 “아무 것도 아닌 사람(nobody)”이다. 이런 뜻에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된다(No-one is anything)”(8.493)는 명제가 성립된다. 만일 그가 “아무 사람에 의해서나 사칭되거나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거나 아무 것도 아닌 사람”(17.2008)이라면, 그는 동시에 특정한 “어떤 사람(somebody)”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다른 인물들과 같은 동시에 다르기도 하다. 그는 작가의 유명 같은 분신인가 하면, 동시에 자기 나름의 인성을 지닌 살아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점은 노시카(Nausicaa)장의 끝 부분에서 그가 거티에게 쓰는 메시지의 수수께끼에 대한 그럴싸한 실마리 하나를 제공한다. “I. AM. A.”라는 메시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생략된 듯한 불완전한 꼴을 하고 있다. 채우지 못한 빈자리에 들어갈 내용의 잠재적 후보는 무수하다. 블룸의 “모든 사람(everybody)”(“A” for “All”?)으로서의 속성을 시사할 수도 있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no-one)”(“A” for “Absent”?)으로서의 입장을 시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관사 “A”⁵⁾는 특수성을 지닌 특정한 존재로서의 “어떤 사람(someone)”으로서의 존재를 강조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가 모든 사람과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가 현실세계의 탄탄한 땅 위에 굳게 발 딛고 선 채 구체적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살펴본 대로, 블룸은 스티븐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차이점 또한 많

5) 필자가 보기에 A가 상징적 문자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 블룸의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작품에 의하면 그가 문장을 마치지 못한 표면적 이유는 어쨌든 “빈자리 없음(No room)”에 있다. 더욱이 “A” 다음에 있는 마침표는 “I”와 “AM”의 경우처럼 그것이 하나의 단어임을, 즉 형용사가 됐건 명사가 됐건 보어 역할을 하는 한 단어의 첫 문자라기보다는 독립된 단어인 부정관사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다. 게다가 블룸이 스티븐과 공유하는 허다한 공통점조차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공통점 안에도 미묘한 차이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둘 사이의 합일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블룸이 스티븐과의 합치 후에 자신에게로 돌아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사실은 블룸이 스티븐과 합일을 이룰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항상 자신의 특수성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블룸과 스티븐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상 모든 인물들간의 상응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상황, 사건, 이미지들의 결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블룸에게서 예시되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립은 실상 모든 인류, “전체와 서로에 대해서 비슷하게 한정된 차이를 낳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창조된 존재들의 인류”(17.1096-98)에 적용된다. 스티븐의 말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만나면서 ... 우리를 통과하면서 걷는데,”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은...명백히 우리 모두의 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체 동질적 인물상응의 궁극적 의미는 “모든 사람이 사라져서 이루어진 일체”(French 194)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살아 있는 자신의 자아로 돌아올 수 있는 유연한 회복력을 갖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대)

인용 문헌

- Adams, Robert Martin. *Surface and Symbol*. New York: Oxford UP, 1962.
- Bell, Robert H. *Jocoserious Joyce: The Fate of Folly in Ulyss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1991.
- Blamires, Harry. *The New Bloomsday Book*. New York: Routledge, 1988.
- Brivic, Sheldon. "Joyce's Consubstantiality." *James Joyce: The Centennial Symposium*. Ed. Morris Beja et al. Urbana and Chicago: U of Illinois P, 1986. 149-57.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and London: Indiana UP, 1960.
- Ellmann, Richard. *The Consciousness of Joyce*. London: Oxford UP, 1977.
- _____. *Ulysses on the Liffey*. London: Faber and Faber, 1972.
- French, Marilyn. *The Book as World: James Joyce's Ulysses*. Cambridge: Harvard UP, 1976.
- Gifford, Don and Robert Seidman. *Ulysses Annotate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 Goldberg, S. L. *The Classical Temper*. London: Chatto and Windus, 1963.
- Harkness, Marguerite. *The Aesthetics of Dedulus and Bloom*. London: Associated UP, 1984.
- Hart, Clive. *James Joyce's Ulysses*. Sydney: Sydney UP, 1968.
- Hayman, David. *Ulysses: The Mechanics of Meaning*. Wisconsin: U of Wisconsin P, 1982.
- Joyce, James.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75.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Viking Press, 1968.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London: The Bodley Head, 1986.
- Kenner, Hugh. *Ulysse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P, 1987.
- Levitt, Morton, P. "The Radical Consistency of Point of View in *Ulysses*." *JJQ* 26 (Fall 1988): 67-88.

- MacCabe, Colin, ed. *James Joyce and the Revolution of the Word*. London: Macmillan, 1982.
- Maddox, Jr., James H. *Joyce's Ulysses and the Assault upon Character*. New Brunswick, N. J.: Rutgers UP, 1978.
- Senn, Fritz. *Joyce's Dislocations: Essays on Reading as Translation*. Ed. John Paul Riquelme.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P, 1984.
- Smith, Mack. "The Structural Rhythm in *Ulysses*: Dominant to Love to Retur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0 (Winter 1984) 404-19.
- Thomas, Brook. *James Joyce's Ulysses: A Book of Many Happy Returns*. Baton Rouge and London: Louisiana State UP, 1982.
- Waidner, III, H. Frew. "Ulysses by Way of Culture and Anarchy." *Approaches to Ulysses*. Ed. Staley, Thomas and Bernard Benstock.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1970. 179-97.

Abstract

The Modality of Bloom's Correspondence with Other Persons

Jong-Il Yi

In James Joyce's *Ulysses*, there appear a confusingly enormous number of characters. The confusion is moderated, however, by diverse kinds of links interconnecting separate persons. This consubstantial mode of sameness being shared by different beings is marked by such an incompleteness as is characteristic of human world. This is represen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ajor male figures of the novel: Bloom and Stephen.

Bloom and Stephen, it is true, share many common features in some ways and show sharp contrasts in others. But they are neither entirely the same nor entirely opposite. A complete fusion of them, as is cynically illustrated in the mirror image of Shakespeare's paralyzed face described in a fantastic scene of the Circe chapter, is pertinent to fantasy rather than reality, and to stasis rather than life. Similarities always contain some shades of difference, and vice versa. Being partial, momentary, conditional, and shaky, the union of the two characters is not a sober hit but a near miss.

The incomplete union between persons, however, does not indicate negative aspects of human relationship. Rather, it entails a living being's, like Bloom's, recuperative ability to return to oneself after a tentative, if significant, meeting with others. And it is the tension between difference, or specificity, and similarity, or universality, that makes possible this resilient process of repetition with a change in human relationship.

- 주제어: correspondence between persons, consubstantiality, similarity, difference, incompleteness, cyclic return, identity, universality, specificity (인물상응, 이체동질, 공통점, 차이점, 불완전, 순환적 귀환, 정체성, 보편성, 특수성)